

고단한 어깨 사랑으로 감사며

빵굽는 동네 김익중, 이명복 부부



새벽 1시 30분이 돼서야 김익중(31)씨와 이명복(27)씨 부부는 하루 일을 정리한다. 공장과 맞붙은 2평짜리 쪽방에는 아들 선빈(4)이가 새근새근 숨을 고르며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는 아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없다. 방이 너무 좁기 때문이다. 남편은 늘 그랬듯이 매장 바닥에 요를 깔고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며 깊은 잠에 빠진다.

새벽 6시 30분 부부는 어김없이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아들 녀석은 여전히 꿈나라다. 가게 셔터를 힘차게 올린 후 아내는 매장을 청소하고 남편은 빵 반죽을 친다. 기나긴 하루의 여정이 시작된다.

“곧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맨 바닥에 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김익중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 내린다. 옆에 있던 이명복씨도 잠시 고개를 떨군다. 힘겨웠던 지난 3년이 너무도 생생히 떠오르기 때문일까.

둘은 95년 봄에 만났다. 남자는 1층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여자는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큰 오빠가 운영하고 있던 떡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같은 건물에 직장을 두고 있다보니 둘은 오고가며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장마비가 몹시도 내리던 7월 어느날, 남자의 제의로 둘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그때 남편이 입고 나온 옷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더운 날씨였는데도 긴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거기에다 노란 멜빵을 하고 있었거든요. 연신 땀을 흘리며 어눌하게 말을 더듬는 모습이란...”

그같은 남자의 모습에서 여자는 순수함을 느꼈다. 둘은 꿈같은 연애를 시작했고 ‘평생 연애’를 위해 96년 4월 결혼행진곡에 발을 맞췄

다.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김익중씨는 이명복씨에게 혼수 대신 그 비용을 창업자금에 보태도록 했다. 이불 한 채와 세탁기 한 대가 혼수의 전부였다.

모든 것을 건 모험이었다. 9년 동안 모은 돈과 4천만원의 빚을 내어 부부는 그해 7월 지금의 점포를 오픈했다. 부부는 너무도 빨리 ‘신혼의 단꿈’에서 깨어야 했다. 남편은 생산을, 아내는 판매를 맡아 하루 20시간의 강행군을 이어갔다. 한 치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 생활은 몸은 물론 마음도 황폐화시키는 듯했다.

“아기를 낳고 너무 힘들었어요. 3개월간 별거를 했죠. 떨어져 있는 동안 힘들수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죠.”

부부는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은 듯한 모습이다. 하루 20시간의 강행군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빚도 갚고 아파트도 장만했다. 3년간의 피말리는 고생 뒤에 얻은 결실이지만 이들은 무엇보다 위기를 딛고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낀다. ‘신혼의 꿈’은 잃었지만 서로에게 향한 사랑은 평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다.

<글/ 손인수>

사회를 향한 작은 한걸음

썬메리 이대점 방채원



뜨거운 햇살에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기 쉬운 여름이면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여름에 휴가를 떠나는 것도 어쩌면 더위를 피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채원(21)씨는 올 여름 썬메리 이대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미지의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올해 동국대 일어일본학과에 입학한 방채원씨는 친구의 소개로 방학 동안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사실 그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예비 사회인. 그래서 그녀는 이번 방학 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돈도 벌고 사회 경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놀러 가고 싶은 유혹도 뿌리치고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니 그녀가 생각한 것 만큼 일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차(茶)를 만들거나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품을 정리하다 보면 단 5분도 의자에 앉아 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다.

“제과점 일이란 게 결코 만만하지 않더군요. 처음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집에 가면 바로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일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일하다 보면 잠시도 앉아 있을 틈이 없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져서인지 처음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곳은 대학가 주변이라 주요 고객이 젊은층이어서 그런지 고객 중 까탈스러운 사람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사람이 드나드는 곳인지라 판매원에게 까닭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한다. 처음엔 그런 상황에 익숙지 않아 적잖이 당황했지만 어느덧 유연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만큼 여유가 생겼다.

“제가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니까 친구들이 모두들 부러워해요. 모두들 빵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저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일에 책임을 갖고 일한다고 생각하니 대학에서의 첫 번째 방학을 나름대로 의미있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평소에 언어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일본어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방채원씨. 그녀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실력을 쌓아 졸업 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한다.

언젠가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하나 하나 착실하게 준비해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걱정이 한낱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새 새로 나온 제품을 정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진다. <글 / 김경옥>

사랑의 빵을 나누고 싶어요

김상업제과학원 고등반 김소영

제과 기술을 배우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취업을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거나 취미로 제과 기술을 배우기도 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제과학원에 다니며 기술을 익히는 사람도 있다.

김상업제과학원에서 고등반을 수강 중인 김소영(30)씨는 제과 기



술을 배워 자선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한 아이의 어머니 동시에 직장에 다니느라 바쁜 날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기술을 배우는 데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녀는 집이 경기도 양평이라 서울에서 먼 거리이지만 요즘은 토요일 오후에 있는 강의까지 수강하는 열성적인 수강생이다.

김소영씨는 다른 사람과 달리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그녀는 고모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어학을 공부하던 중 일본 친구의 소개로 하게 된 일이 남자들도 힘들다는 도로공사의 현장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여자라고 깔보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현장에서 실무를 익혔습니다. 업무지시를 하기 위해선 일단은 현장 감각을 키워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 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 받은 그녀는 홍콩까지 활동무대를 넓혔다. 목회를 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김소영씨는 94년에 귀국해 결혼한 후에는 신학대학에 편입해 공부를 계속했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학교를 쉬지 않았을 정도로 그녀의 집념은 어떤 일을 하든지 대단했다.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그녀는 현재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원 주택 컨설팅을 하고 있다.

“우연히 TV에서 케이크 데커레이션하는 것을 보고 제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곳에 나와 제빵기술을 배우게 되었지요. 요즘에는 교회 다과회에 제가 직접 만든 빵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소영씨는 기회가 된다면 훗날 직접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제과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녀의 이마에 어느새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힌다.

<글 / 정현상>